

[2021-09]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Press Release</b>			
Request	For Immediate Release			Pages: 3	
Date of Release	2.12.2021 (금요일)	Contact	Tammy Cho 323-936-3014		

**특별기획영상**  
**백 남 준**

*“모든 진리는 가면의 진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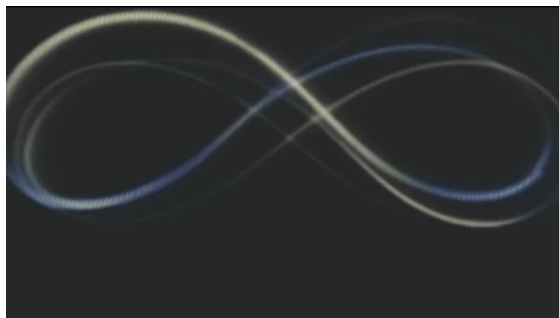


- ▶ 행사명: 특별기획영상 "백남준"  
Special Documentary 'Nam June Paik'
- ▶ Premiere on KCCLA YouTube Channel | Friday, February 19, 09:00 am  
<https://www.youtube.com/user/VideoKCCLA>
- ▶ 온라인 사이트: LA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및 유튜브 계정 등
- ▶ 주최: LA한국문화원
- ▶ 연출 & 내레이터: 이경화(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문화재단 국제이사)
- ▶ LA한국문화원 323-936-3014 전시담당 Tammy Cho or [tammy@kccla.org](mailto:tammy@kccla.org)

LA한국문화원(원장 박위진)은 LA한국문화원은 미 주류사회에 한국미술 집중 조명하기 위해 온라인 콘텐츠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 특별기획영상을 제작하여 2.19(금) 9시 문화원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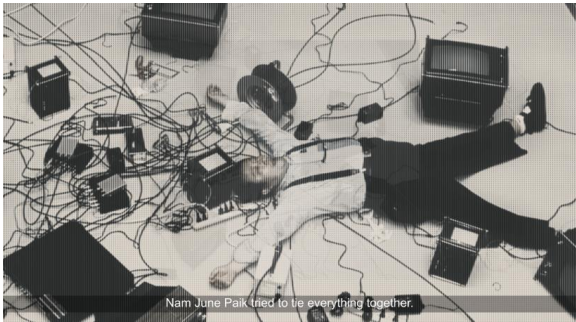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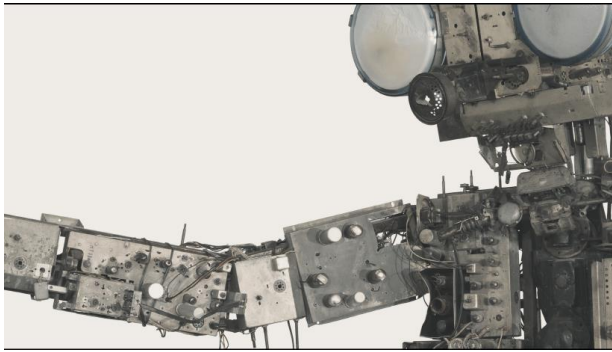


이번 영상은 재미 미디어 아티스트 이경화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백남준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 영상이다. 20세기에 이미 테크놀로지, 환경, 인권 등의 문제를 다뤘던 소통과 화합의 예술가로서, AI(인공지능)로 대변되는 정보혁명시대, 분열과 혼돈의 현 시대상황에 재조명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작가로 백남준을 소개한다.



이 작가는 대중매체 자체를 오브제로 보고, 표현 대상으로 삼았던 백남준의 거대한 설치물, 영화, 퍼포먼스 등을 영상을 통해 보여주고 전자 미디어를 미학적 담론으로 이끌어낸 그의 철학과 예술세계에 대해 설명한다. 최초의 관객참여 예술로서 파티시페이션 TV 아트, 융합적 개념으로서의 미디어 아트에 대해 백남준 문화재단의 김홍희 이사장(전 서울 시립미술관 관장)의 영상인터뷰로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LA한국문화원 전시 담당 태미 조 323-936-3014로 연락하면 된다. /끝/



## 백남준(Nam June Paik)

생전에 뉴욕, 필른, 도쿄, 마이애미와 서울에 주로 거주한 그는 여러 매체로 예술 활동을 하였다. 현대미술의 작가, 관객, 비평 사이에 존재하는 벽을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뛰어넘은 예술가로서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백남준은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로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하였다. 예술가의 역할이 미래에 대한 사유에 있다고 보았으며 예술을 통해 전지구적 소통과 만남을 추구했다. “과학자이며 철학자인 동시에 엔지니어인 새로운 예술가 종족의 선구자”, “아주 특별한 진정한 천재이자 선견지명 있는 미래학자” “가장 현대적인 예술가” 로 평가받고 있다.



## 이경화(Kyunghwa Lee)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문화재단 국제이사

이화여자 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도미하여 하버드 건축대학원에서 건축설계를 전공했다. 철학적 측면에서 현대예술의 실험성을 펼쳐나가는 설치 퍼포먼스와 뉴미디어 작업을 주로 한다. REDCAT 전시, 아트 바젤 (Art Basel) 컨버세이션 및 살롱, UCLA 철학과에서 '탈신체화의 철학: 포스트 휴머니즘 미학'에 대해 강연하였고 쿤스트 할레 (Kunsthal)의 지젝 / 바디우Zižek / Badiou 철학과 예술 이벤트에 참여했다.